

# 비대칭 전력의 효용성에 대한 전사(戰史)적 고찰\*

장 용 운\*\*

1. 서 론
2. 비대칭 전력의 개념과 효용성
3. 비대칭 전력의 전쟁사적 사례
4. 비대칭 전력의 특징과 대비책
5. 결 론

## 1. 서 론

최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 가운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국군의 전력증강과 현대화를 계속해 온 결과 재래식 전력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위협은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그중에 북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의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정치학박사, [choin1212@hanmail.net](mailto:choin1212@hanmail.net)

한의 핵과 미사일,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여 전쟁준비에 매진한 결과 지금은 정규군과 예비병력의 전력은 물론이거니와 핵무기를 포함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각종 미사일과 장사정/다연장포, 잠수함, 그리고 18만에 달하는 특수전부대 등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한국 안보에 대한 북측의 위협은 항상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전쟁 후 전례가 없었던 북한의 고강도 위기조성행동이었다고, 한반도 정세의 판을 흔들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한 북한의 도발은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북측의 비대칭 전력이 증가되는 위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대남군사우위를 유지하면서 전면전 수행능력은 물론 국지적인 대남도발을 통한 군사적 위협능력을 증가시켜왔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화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비대칭 전력'의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동서고금의 역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비대칭' 개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그리스 시절에 테베의 에파미논다스(Epaminondas) 장군은 루크트라(Leuctra) 전투에서 사선대형(oblique order)으로 스파르타군을 격퇴하였고,<sup>2)</sup> 나폴레옹 전쟁당시 스페인은 무적 나폴레옹군을 게릴라식 비정규전으로

1) 2010년 1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및 특수전 병력을 주축으로 한 비대칭 전력은 평소 국지도발뿐 아니라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 우리 군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p.23~29.

2) 기원전 371년 테베인들은 그리스제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스파르타에 도전하였다. 테베의 에파미논다스(Epaminondas) 장군은 6,000명의 병력으로 11,000명의 스파르

괴롭혔으며,<sup>3)</sup> 베트남전쟁(1946~1975)에서 호치민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한 투쟁으로 프랑스와 미국을 축출하고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였다.<sup>4)</sup> 이러한 사례들은 “정법으로 대치하고 기법으로 승리한다(以正合以奇勝)”는 손자의 병법사상과도 연결되어 전쟁에서의 승리는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수행방식이 상호 연결되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과 관련된 사례는 고대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과 학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쟁에서도 이러한 비대칭 개념은 전쟁수행에서 그 효용성이 발휘되고 있다. 2차대전 말기에 등장한 핵무기는 재래식 전쟁개념에서 볼 때, 과히 혁명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력을 보인 사례이며,<sup>5)</sup> 걸프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정보전의 수행방식은 눈뜬 사람과 앞모 보는 장남과의 혁명적인 비대칭적 전쟁수행 방식을 보여주었다.<sup>6)</sup> 걸프전의 수행결과

타군에 대응하여 루크트라(Leuctra)에서 사선대형(斜線隊形)이라는 비대칭 전투대형을 사용하여 스파르타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쟁취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 pp.45~46.

- 3) 1807년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끝까지 저항하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발령하였으나 스페인이 이에 반대하고 영국과 밀무역을 계속하자 나폴레옹은 스페인 왕을 퇴위시키고 그의 형 조셉을 스페인 왕으로 봉하고 스페인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스페인 국민들은 전국적인 반프랑스 운동을 전개하며 유격전을 실시하였다. 그때까지 프랑스군은 나폴레옹의 탁월한 전략으로 정규전에서는 어떤 군대도 격파할 수 있었으나 스페인의 원시적인 저항형태인 게릴라전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이것이 현대적인 게릴라전의 시초가 된다. 위의 책, pp.121~122.
- 4) 1961년에 이르러 미국의 케네디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은 남베트남의 지엠(Deim)정권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해방전선의 게릴라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베트남이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군사적 개입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북베트남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결합한 베트남만의 독자적인 인민전쟁을 전개하여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축출하고 1975년 베트남을 공산화 통일하였다. 결국 베트남전쟁을 미국의 패배, 공산혁명세력의 승리로 끝이 났다. 후루타 모토오(박홍명 역), 『역사속의 베트남전쟁』(서울: 일조각, 2007), pp.22~70.
- 5) 원자폭탄은 애초에 군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쓸모없게 만드는 수단처럼 비춰졌다. 최초의 원폭이 히로시마에 터지자 구형개념에 입각한 전쟁은 철폐된 듯 보였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도시들을 마음대로 날려버릴 수 있는 국가에게 감히 대적할 수는 없었다. 재래식 전쟁은 어떤 형태론도 원자폭탄이라는 비대칭 전력 앞에 힘을 쓸 수 없을 것이었다. 조지 프리드먼·메르디스 프리드먼 공저(권재상 역), 『전쟁의 의미』(서울: 도서출판 자작, 2001), p.58.
- 6) 걸프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둔 원인 중 상당부분은 레이더에 상대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를 만들어낸 데 있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 공습의 성공은 폭격의 성공률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특히 첫 번째는 지상전에서 다국적군의 인명피해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군력이 이라크 방공망을 제압하고 이라크 최고 사령부가 자신의 군대를 지휘할 능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보여준 탁월한 능력이었다. 그 열쇠는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의 지휘·통제·통신·정보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테러 역시 현대적 첨단과학무기에 대응한 비대칭적 개념으로 수행되는 특수한 전쟁수행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이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전쟁수행방식을 초월한 개념이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개념속에는 '비대칭' 혹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비대칭'의 개념은 전쟁수행방식의 측면에서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비대칭 전력'이나 '비대칭적' 전쟁수행방식에 대한 대응에 소홀히 해서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비대칭 전력'의 개념속에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대형이나 전쟁수행방식이 포함될 수도 있고, 첨단과학무기를 사용하는 기상천외의 첨단과학전뿐만 아니라 고전적이고 원시적인 비정규전의 수행개념도 포함되는 광의의 '비대칭'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칭'의 개념적 사고를 임진왜란에 적용하여 보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군은 육전(陸戰)수행에서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활이나 칼, 창 등으로 무장된 조선육군을 상대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전에서는 조총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 수군에 대응하여 조선 수군은 대포를 사용하므로 해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거북선이라는 기상

---

극단적으로 발전된 데 원인이 있었다. 2차대전 중, 일정지점을 명중시키려면 9천 발의 폭탄이 필요했고, 베트남전에서는 3백 발이 소요되었는데, 걸프전에서는 한두 발로 충분했다. 정밀유도무기의 능력 때문이었다. 위의 책, pp.286~312.

천외의 함선을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의병군은 일본 육군의 정규전 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평가한다면, '비대칭 전력'이 전쟁의 주도권을 좌우했던 전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위력이 발휘되는 전쟁의 속성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유사시의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전 또는 평시의 군사적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과히 위협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래식 전력에서 18만의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남북한 간의 전면전 또는 국지전 상황에서 정규전 작전과 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 근접 배치된 장사정/다연장포, 각종 미사일, 그리고 핵 및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상당수의 잠수함 등은 장차 예상할 수 있는 대남무력도발에 우리가 반드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비대칭 전력이다.<sup>8)</sup> 만일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어떠한 무력전에서도 우리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2. 비대칭 전력의 개념과 효용성

미래전은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첨단기술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

7)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 집문당), pp.294~307.

8) 지금 북한의 군사전략을 충족시켜 주는 핵심전력이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우리의 연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칭 무기체계의 개발과 강력한 방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생산능력 보유, 한반도 전 지역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과 살상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 왔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은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은 유사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여 우리의 주력을 붕괴시키고 동시에 후방교란을 통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앞당기는 전력을 구사하고 있다. 박영택 외,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104~107.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비대칭 전쟁, 즉 전통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투쟁 방식, 즉 상대방의 무력에 대한 역대응을 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인 접근, 즉 비대칭 전략(예: 테러행위)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쟁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9)</sup> 전쟁에서의 비대칭 개념의 적용과 운용은 고대전쟁으로부터 현대전, 미래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로도 계속 사용될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전쟁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울 때, 성공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1) 전쟁에서 적용되는 비대칭 개념

천지 우주의 운행에는 낮과 밤이 있고, 인류 역사의 발전에는 정(正)과 반(反), 그리고 합(合)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도 있다. 전쟁에 있어서도 손자는 정(正)과 기(奇)가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물에는 '비대칭적'인 개념과 관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대칭적 전략과 비대칭적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전력에 있어서도 대칭적 전략과 비대칭적 전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비대칭 전력이 현대에 이르러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의 교훈을 논의하는 학문적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보잘것없는 북베트남 측을 당하지 못한 원인으로 '비대칭전'이 주요

9) 이동하 박사(현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래전쟁의 네 가지 의미를 논하는 입장에서 첨단기술전쟁, 사이버전쟁, 평화유지전쟁, 더러운 전쟁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여기서 더러운 전쟁은 소위 비대칭전쟁, 즉 상대방의 무력에 대한 역대응을 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하,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서울 : 북코리아, 2008), pp.14~27.

개념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비대칭 개념은 군사력 측면에서 약한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강한 군사체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전쟁수행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개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전은 인류의 전쟁사가 시작되면서 수없이 사용된 싸움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전쟁을 하다보면 전력이 강한 측과 약한 측이 있기 마련이고, 약한 측이 강한 측을 이기기 위해서는 열세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기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비대칭 전략의 기본개념은 '군사적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군사적 충돌에서 주로 약한 측이 군사력의 질과 양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쟁수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비대칭전략을 군사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춘추전국시대의 손자(孫子)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군사전략의 탁월한 이론가로 손꼽을 수 있는 손자는 그의 병법에서 '적이 강하면 피하고, 적이 방비하지 못한 곳을 치고, 적이 뜻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強而避之 攻其無備 出其不意)'고 주장하면서 '비대칭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sup>10)</sup> 용병의 법은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는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無待其不來 恃吾有以待也)'고 역설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도 강조하였다.<sup>11)</sup>

현대 군사이론에서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 이론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앤드류 마크(Andrew J. R. Mark)가 1975년 세계정치(World Politics)에 기고한 논문 "왜 강대국이 소규모 전쟁에서 패배하는가?"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왜 군사적 약자인 베트남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는지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앤드류 맥이 사용한 '비대칭'이라는 표현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 군사적 의미에서 '비대칭전'(asymmetric

10) 손자병법 제1편 시계(始計)편

11) 손자병법 제8편 구변(九變)편

Warfare)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전쟁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sup>12)</sup>

또한 ‘비대칭 전력(asymmetric force)’이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적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전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으로 일반적으로 첨단·재래적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게릴라전, 수단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은, 핵무기 및 WMD, 18만의 특수부대, 그리고 잠수함, 전진 배치된 야포와 휴전선 일대의 땅굴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와 해커전, 전자전 수행능력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북한의 유용한 기습공격능력으로 이는 핵능력으로부터 각종 테러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극심한 경제난과 남북한간의 국력격차를 극복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2) 비대칭 전력의 효용성

지금 비대칭 전력이 남북한 군사력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비대칭 전력이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대 전쟁사로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비대칭적 전력이 많은 경우에 전투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그러한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비대칭’ 개념은 전승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전쟁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적과 싸워 이기려는 기습(surprise)의 원칙을 적용하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며, 창의(creativity)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12) 김우섭,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99~100.

13) 위의 책.

사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는 노력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자고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아를 막론하고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각종 상황에 따라 각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도하는 자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융통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예상되는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개념의 효용성과 그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유사시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비대칭 전력의 전쟁사적 사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쟁사를 면밀히 고찰해 보면,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각국의 전쟁지도자 또는 지휘관들은 집중과 절약, 기동, 기습, 창의 등의 전쟁원칙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적을 극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대칭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하여 승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전투대형이 될 수도 있고 기동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쟁방식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비대칭 개념에 입각한 전력의 핵심은 적으로 하여금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 1) 고대~근세의 전쟁시

## (1) 루크트라(Leuctra)전투

기원전 371년 테베(Thebe)인들은 그리스 제국의 주도권을 노리고 스파르타(Sparta)에 도전하였다. 에파미논다스(Epaminondas) 장군이 이끄는 테베군은 6,000명이었고, 스파르타군은 11,000명이 루크트라에서 대결하였다. 당시 스파르타군은 숫적인 우세를 믿고 전통적인 전투대형인 방진으로 테베군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스파르타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방진을 변형한 사선대형(斜線隊形, oblique order)으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였다. 당시 테베군은 여러 번 패한 경험이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스파르타군은 최근의 승리로 사기가 높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그 당시로 보아서 획기적인 비대칭 대형을 사용하여 스파르타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sup>14)</sup>

당시 테베군이 수적인 열세와 저하된 사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에파미논다스 장군의 창의력과 지략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는 좌익의 병력을 4배로 증강하여 중심을 48명이나 되게 두텁게 하여 스파르타군의 우익에 먼저 대결하였고, 대열 중에서 약화된 중앙과 우익 전열은 좌익보다는 조금 후방에 위치하여 스파르타군의 우익이 격파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교전을 하지 않도록 서서히 전진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스파르타군의 배치에 비대칭적인 사선대형을 사용함으로써 수적으로 우세한 스파르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5)</sup> 이 전투는 비대칭적 개념의 전투대형으로 승리한 최초의 전사(戰史)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14)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 전쟁사』 (서울 : 황금알, 2004), pp.44~46.

15) 위의 책.

## (2) 베트남의 대몽골전쟁(1257~1287)

베트남은 중국의 한(漢)무제가 BC. 111년 남비엣(Nam Viet)을 점령하면서 시작된 오랜 기간의 중국의 통치에서 벗어난 베트남은 1257년 또다시 몽골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1206년 징기즈칸이 몽골족을 통일한 후 1234년 금(金)제국을 멸망시키고 1279년에는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해 나갔다.<sup>16)</sup> 당시 1257년부터 1287년에 이르는 30년간 몽골군은 베트남을 3차에 걸쳐 침공하였으나 결국 베트남 침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베트남은 세계정복의 가도에 나선 천하무적의 막강한 몽골군에 대응하여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전을 구사하여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1257년 몽골(元)황제 쿠빌라이가 3만 대군을 보내어 베트남을 공격했을 때, 몽골군은 초기전투에서는 베트남의 수도 탕롱성을 점령했으나, 베트남의 청야전술과 게릴라전을 포함한 지구전에 걸려 철수하였고, 몽골군은 1284년에는 50만 대군으로, 1287년에는 30만 대군으로 대규모 침공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몽골군의 패배로 전쟁은 끝났다. 당시 베트남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20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베트남은 청야전술과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포함한 비대칭전을 구사하여 무더위와 열대병으로 고전하는 몽골군을 격퇴시켰던 것이다. 마지막 전투인 바익강전투에서 베트남의 찰흥다오(陳興道) 장군은 후퇴하는 몽골군을 유인하여 10만 이상을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 (3) 백년전쟁(1339~1453)

중세는 기병의 시대이면서 전법의 암흑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독창적인 전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적인 전쟁양상은 영·불간의 백년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련의 결혼정책으로 프랑스에 많은 봉토를 소유하게 된 영국 국왕 에드워드3는 전 프랑스의 소유권을 주장

16) 위의 책, pp.67~75.

하며 프랑스에 침입하였는데, 당시 영국군은 초기전투에서 장궁(長弓) 궁수와 보병의 교묘한 조화로 승리함으로써 중세 천년간 전장을 지배해 왔던 기사(騎士)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sup>17)</sup> 백년전쟁 초기에 크레시(Crecy) 전투에서 보여준 영국군의 장궁(長弓)과 보병의 교묘한 조화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술은 당시 중세기병으로 무장되었던 프랑스군에 비하여는 가히 비대칭적인 무기와 전술이었다.

그러나 백년전쟁 말기에 이르러 프랑스군은 대포의 위력과 사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영국의 전술을 능가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영국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sup>18)</sup> 이것 또한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비대칭적 전력의 영향으로 기병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이제 중세의 봉건 귀족들은 더 이상 전쟁수단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중세 기병 대신 직업적 보병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화포의 위력이 기병의 충격력을 대체하게 되는 근대적 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업적 보병과 화포는 기병중심의 중세전투에서 획기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4) 임진왜란(1592~1598)

16세기 말엽,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는 일본의 조선침략으로 시작된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전란의 소용돌이가 명나라까지 참전하게 됨으로써 다국간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592년 4월 일본군은 약 20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조선군은 6만의 병력으로 방어에 임하였다.<sup>19)</sup> 당시 200년간의 평화속에 지내오면서 국방에 소홀했던 조선은 전국시대를 거쳐오면서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선의 의병이 전개한 다양한 비정규전은 일본군의 정규전 수행에 예상하지 못한 비대칭

17)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위의 책, pp.76~77.

18) 위의 책.

19) 윤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 집문당, 2001), pp.372~373.

전력으로 일본군의 작전을 방해하였다.

더구나 해전에서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수군에 대응하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각종 대포로 무장하여 장거리 사격능력을 갖추었고,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철갑선을 보유함으로써 해전에서 연전연승함으로써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조선 수군이 갖추고 있었던 대포를 중심으로 한 장거리 교전능력과 거북선과 같은 돌파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전선(철갑선)을 장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대해 우수한 비대칭 전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조선측 수군의 비대칭 전력이 효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평가할 때, 조선이 초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명(明)나라의 지원도 있었지만,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육전에서는 의병이 있었고,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의 조선 의병은 육전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조선 수군의 대포와 거북선은 해전에서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것은 그러한 비대칭 전력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다.

## 2) 나폴레옹 전쟁시

### (1) 스페인 원정(1808~1809)

프랑스 혁명(1789년)과 더불어 등장한 나폴레옹은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능력과 비범한 정치적 수완으로 일약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고, 1807년에 이르러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 유럽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인이 그의 대륙봉쇄령을 반대하고 영국과 밀무역을 계속하자, 나폴레옹은 스페인 국왕 찰스 4세를 퇴위시키고, 그의 형 조셉을 스페인왕으로 봉하면서 스페인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스페인 국민들은 전국적인 반프랑스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즉, 스페인 국민들은 산악을 이용하여 비적과 같이 도처에서 프랑스군을 괴롭혔다. 지금까지 프랑스군은 나폴레옹의 전략에 의하여 당시의 정규전에서는 어떤 군대도 격파할 수 있었으나, 스페인의 원시적인 저항형태인 게릴라전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으니 이것이 현대적인 게릴라전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바다 건너 영국이 스페인의 게릴라 부대를 지원하고 이에 힘을 얻은 스페인의 정규군도 도처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기에 이르렀다. 게릴라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나폴레옹은 이를 진압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고전하게 되었다. 아무리 정규전에 능한 나폴레옹이었지만 스페인의 군대와 국민과 자연과도 싸워야 하는 비대칭전에 직면하자 고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무적의 상층 프랑스군이 한달 스페인의 비정규군에게 항복한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 뒤퐁(Dupont) 장군이 지휘하는 25,000명의 남부 스페인 방면군이 라 카르리나(La Carolina) 협로에서 스페인 반란군에게 포위되어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프랑스군은 마드리드에서 철수하고 결국 에브르(Ebro)강 후면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접국 포르투갈 각지에서도 스페인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 상황이 악화되자, 포르투갈에 주둔하고 있던 쥘노(Jonot)군도 해로로 본국에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되자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이 직접 190,000의 대병력을 이끌고 스페인을 평정하였으나, 스페인은 다시 게릴라전으로 환원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중앙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자 나폴레옹은 결국 스페인 원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1)</sup> 무적의 프랑스군이 스페인 전역에서 이러한 고전을 겪게 된 것은 스페인 국민들의 게릴라전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비정규전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결과였다.

20) 위의 책, pp.120~124.

21) 위의 책, pp.122~123.

### 3) 제1차 세계대전시

#### (1) 독일의 잠수함전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영국의 해상지배권을 인정하고 그다지 도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잠수함을 이용한 비대칭전을 대전 중에 즐겨 사용하였다. 개전 이래 중립을 선포하고 해양의 자유를 주창하면서 영국과 무역을 계속 하던 미국의 상선에 대해 독일은 잠수함전으로 통상을 저지하려 시도하였다. 대전이 한창 고조되던 1915년 2월 독일은 영국 근해 해역을 해전구역으로 규정하고 이 구역 내에 들어오는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격침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독일 잠수함의 활약으로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으로 의존하던 영국의 식량사정은 악화되고 물가는 나날이 폭등하면서 영국의 경제사정은 악화되어 갔다.

당시 미국은 즉시 독일정부에 대하여 공해상에 있어서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경고하였으나, 독일은 이러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무경고 격침을 계속하였다. 그러다 얼마 후 미국의 강력한 항의에 독일은 무경고 격침을 중지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독일은 1917년 2월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하고 잠수함의 활동구역을 대서양과 북해뿐만 아니라 지중해 방면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무제한 격침이 미국의 참전을 초래할 것을 독일 수뇌부는 예상했으나, 아마 그들은 미국의 전쟁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영국의 산업을 고갈시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독일의 200여 척의 잠수함으로 대서양을 유린하면 미국의 병력과 물자의 수송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sup>22)</sup>

그러나 1억 2천만의 인구나 무진장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방대한 전쟁 잠재력을 가진 미국을 적국으로 만들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독일의 오산이었다. 드디어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대독선전포고문을 의회에 제안

22) 1917년 봄이 되자 독일의 U-보트 작전(잠수함 작전)은 독일에 거의 승리를 안겨줄 뻔한 국면까지 이르렀다. 버나드 로 몽고메리(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서울 : 책세상, 2004), p.809.

하고, 그것이 가결됨으로써 미국과 독일은 본격적으로 전쟁상태로 돌입하였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이 미국의 제1차대전 개입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당시 제해권을 갖고 있지 못한 독일이 채택했던 잠수함전은 막강한 영국의 해군력에 대응한 비대칭 전력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다.

#### 4)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시

##### (1) 중국의 대일전쟁과 공산혁명전쟁(1937~1949)

1931년 9.18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중국대륙침략이 노골화되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공세와 일본군의 대륙침략에 대응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항일에 뜻을 두었다기보다는 국민당 정부의 타도에 두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 시기의 '전쟁'은 수단이었고 '혁명'은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혁명전쟁'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2차에 걸친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의 당시 상황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sup>24)</sup>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항일 유격전과 국공내전은 비정규전과 정규전이 혼합된 전쟁, 비대칭 전력과 대칭전력이 혼재한 전쟁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일전쟁시기 공산당의 항일 유격근거지는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항일 유격근거지에서 공산당에 의해 동원된 민중들은 점진적으로 혁명화되거나 혁명적 조치에 순응해 가면서 항일전쟁을 수행하는

23)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의 계기는 1933년 1월 17에 발표된 『대일항전선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34년 2월 11일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정부 주석 모택동과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주덕은 모든 항일반장(抗日反蔣)의 무장과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성명하였는데, 이 성명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통일 전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반장, 즉 장개석 국민당을 반대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강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국민정부로부터의 공세를 면하기 위한 책략으로 통일전선을 제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신승하, 『중화민국과 공산혁명』(서울 : 대명출판사, 2001), pp.407~425.

24) 윤광택, 『중일전쟁과 중국혁명』(서울 : 일조각, 2002), pp.5~27.  
알랭 루(정철웅), 『20세기 중국사』(서울 : 도시출판 책과함께, 2010), pp.127~176.

전력의 원천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농촌은 대일전쟁과 국공내전을 수행하는 비대칭 전력의 공급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 모택동은 그러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적이 주둔하면 요란시키고, 적이 진격해 오면 물러나고 적이 피하면 타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는 모택동의 16자전법은 우세한 적을 맞이하여 열세한 병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비대칭전의 기본원리로 적용되었다.

## (2) 태평양 전쟁말기 일본군의 특공작전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으로 시작된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의 참전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본은 패전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시작되는 연합군의 반격에 밀려 1946년 6월 오키나와 전역기간 중 일본군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해 보고자 특공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sup>25)</sup>, 이는 막강한 미군 전력에 대한 궁여지책이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비대칭 전력과 흡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당시 항공력이 워낙 열세했던 일본군이 궁여지책으로 미 항모에 비행기를 출동시켜 자살공격을 불사하는 ‘가미가제’ 특공은 일본군의 상징적 비대칭 전력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가미가제 특공은 비행기 앞머리에 폭약을 장치한 특공기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연료만 가지고 미 함선으로 돌입하는 것이었다. 오키나와 전역기간 중 미 해군은 일본군의 가미가제 특공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더욱 큰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25) 처음에는 일시방편으로 지원자에 한하여 실시했던 제한된 특공작전이 오키나와 전역을 목전에 두고 계획된 ‘천호작전’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대본영에서는 대만 및 오키나와로 접근해 오는 미군에 대하여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또한 본토결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제10방면군을 중심으로 특공을 실시케 한다는 ‘천호작전’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지상군을 제외한 전 부대를 특공위주로 편성운용했다.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위의 책, pp.435~436.

가미가제 특공 이외에 공중특공의 하나로 '오오카'라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목제 글라이더 두부에 약 1톤의 폭약을 장전하고 비행기에 예인되어 비행하다가 약 1,800미터 상공에서 연결을 끊고 날아가 미 함선에 돌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유능한 글라이더 조종사가 부족하고, 글라이더를 예인하는 항공기의 속도가 느려서 격추되기 쉬운 단점이 있어 별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sup>26)</sup>

또한 진양(震洋), 복룡(伏龍) 등의 특공이 있었는데, 진양은 목제의 고속 모터 보트에 폭약을 장전하고 미 함대에 충돌하는 것이었고, 복룡은 잠수부가 기뢰를 가지고 함선 밑바닥에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상특공 가운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가이텐(回天)이었다. 이것은 잠수함 발사용인 93식 산소어뢰를 일인승 잠수함으로 개조한 것으로 두부에 152킬로그램의 폭약을 장착하고 모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된 뒤 특공대원이 부상(浮上), 잠항, 변속, 방향전환 등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미 함선에 충돌 자폭하는 것이었다. 속도는 약 30노트였으며 23킬로미터까지 항진할 수 있었다. 보통 잠수함 1척당 4기의 가이텐을 적재하였는데, 그 명중률은 거의 100%였다. 이러한 공격에 미군은 계속되는 원인불명의 폭발로 전전공공했던 것이다.<sup>27)</sup> 가이텐은 인간어뢰인 셈이었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도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판 비대칭 전력으로 되살아난 것인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핵무기

재래식 전력에 비교하면 핵무기는 확실히 비대칭적 전력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재래식 전력과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기 위한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일본

26) 위의 책, p.436.

27) 위의 책, p.437.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거부하자 미국은 핵무기의 사용을 결심하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이 8월 6일 일본 7대도시의 하나인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도시의 60%를 일시에 파괴되었고, 8월 9일에는 원자탄 제2호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도시의 45%를 한순간에 쓸어버렸다.<sup>28)</sup>

단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평화협상을 요망하게 되었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길고 긴 태평양전쟁은 3년 8개월 25일 만에 종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군사적 측면에서 지상전에서의 전격전의 등장, 해상해전에서의 항공모함, 항공전에서의 제공권, 전략폭격 등 많은 군사적 진전을 이루어왔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핵무기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현대적 비대칭 전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등장은 전쟁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게 되었다. 너무나 엄청난 위력을 갖는 핵무기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쉽게 치를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 5) 현대전쟁

### (1) 베트남전쟁(1945~1975)

베트남의 역사는 일찍부터 외세의 지배와 저항의 역사로 계속되어 왔다. 1000여 년에 걸친 중국의 지배와 100년에 가까운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저항의 역사를 지속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당시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의 중심이었던 호치민(Ho Chi Minh)이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전 후 프랑스는 다시 인도차이나 복귀를 시도하자 이에 대항하여 베트남은 독립전쟁(제1차 베트남전쟁)을 치루었고, 프랑스가 물러나고 뒤를 이어 개입한 미국과의 전쟁(제2차 베트남전쟁)을 치루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호치민군은 베트남 특유의 게릴라전과 정규전이 혼합된 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외세를 물리쳤다.

28) 위의 책, pp.438~449.

제1차 베트남전쟁에서 호치민군은 무기와 장비의 열세속에서도 모택동 전략의 이론적 지지자인 보 구엔 지압(Vo Nguyen Giap)의 주도하에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전투력량을 축척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디엔비엔푸(Dienbienphu)에서의 한판 승부로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디엔비엔푸전투는 초인적인 인내와 끈기의 결과로 이루어낸 승리였다. 프랑스가 몰려나자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였지만, 호치민군은 이번에도 베트남 특유의 게릴라전과 정규전을 배합하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군을 굴복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호치민군의 승리는 베트남만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방식, 즉 인민전쟁이라는 전쟁수행 방식과 지압장군의 3불(不)전략에 기초한 비대칭 전략에 힘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압의 3불(不)전략은 적이 원하는 시간, 적이 원하는 장소,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철저한 비대칭적 방법에 기초한 전략이었다. 이는 상대가 낮에 싸우려고 하면 밤에 싸우고, 상대가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면 정글로 유인하고, 화력을 앞세워 전면전으로 싸우려고 하면 게릴라전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이것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대칭전략이었다. 결국 지압은 이러한 전략으로 막강한 프랑스, 미국 뿐만 아니라 인접 강대국 중국을 상대하여 싸웠던 것이다.

## (2) 테러와 대테러전쟁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중심부인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생활의 공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약자가 강자에 대응하는 극단적인 '비대칭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재앙적 테러의 표본적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9·11테러 사건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국가적 테러는 미국 혼자 힘으로 다룰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안보위협은 근대국가의 체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주체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초국경적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비대칭적 초국경적 위협에 대처하여 대테러전쟁이라는 독특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테러리즘은 전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계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권력관계, 문화의 차별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에도 크게 관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29)</sup> 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이러한 테러사건은 우리에게 이른바 국가 없는 전쟁, 혹은 '비대칭 전쟁'으로도 불리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유형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국가가 더 이상 전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 근대와 시민, 정규군과 비정규군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동시에 이념·종교·문화 등에 기반한 비국가·초국가적 단위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sup>30)</sup>

이러한 비대칭 전쟁은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세에 있는 적을 상대로 비전통적인 전술로 대항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습·테러·비인도적 무기 등으로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이테크(high-tech)방어체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로테크(low-tech)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 위협은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서 장거리 탄도탄이나 미 본토에 대한 각종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sup>31)</sup>

29) 이태윤, 『21세기 국제 테러리즘』(서울 :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4), pp.258~261.

30) 위의 책, p.262.

31) 위의 책, pp.263~265.

## 4. 비대칭 전력의 특징과 대비책

### 1) 비대칭 전력의 특징

역사적으로, 전쟁을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찰해 보노라면, 첫째로 창조적 사고로 전투에 임하는 측이 승리의 가능성이 많았다. 그것은 바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싸울 때 전투효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쟁원칙에서 기습과 창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으로 하여금 대응하기 곤란하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테베가 싸운 루크트라(Leuctra) 전투에서 사선대형은 스파르타의 전통적인 전투대형(phalanx)보다 창조적 대형으로 싸워서 적보다 열세한 병력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었고, 13세기 후반 베트남은 무적의 몽골 대군을 맞이하여 청야전술과 게릴라전으로 적을 적멸하였다. 14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 있어서도 초반에는 영국군이 장궁(長弓)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기병을 격파하여 승리를 했으나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군은 대포를 잘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기존의 전투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있어서도 육전에서는 일본군이 조총을 사용하는 육군이 조선군을 쉽게 이길 수 있었고,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대포를 잘 사용하고 거북선과 같은 병선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비대칭적 방법이나 전력의 사용은 압도적인 강자에 대응하여 싸워야 하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리스의 고대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이 미국의 참전을 거부하기 위해 선택한 잠수함전은 당시 영국에 비해 해군력이 열세했던 독일이 미국의 참전을 거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또한 중일전쟁과 혁명전쟁을 수행하던 모택동군이 싸우던 '16자 전법'도 결국 열세한 상황에서 선택한

투쟁방식이었으며, 태평양 전쟁말기에 일본군이 선택했던 특공작전도 결국은 열세한 전력상태에서 강대한 미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호치민군이 구사했던 인민전쟁의 수행 방식 역시 열세한 전투력으로 자신보다 강대한 군사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21세기 테러전쟁 역시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전쟁에서 비대칭 전력의 본래는 약한 측이 강자와 싸워 이기려는 창조적 기습으로서의 성격을 특징으로 갖고 있었으나, 핵무기와 같은 비재래식 전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강한 측도 압도적 비대칭 전력을 추구하게 되는 새로운 동기가 나타남으로써 비대칭 전력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전쟁수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압도적 전쟁력량을 소유하여 약한 측으로 하여금 대응의지를 아예 포기하게 하려는 강자의 욕망이 새로운 비대칭 전력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 비대칭 전력의 약한 측의 전용물이 아니라 강한 측도 필요에 따라 추구하게 되는 창조적 기습능력으로 그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넷째, 비대칭 전력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성의 성격과 특성은 갖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은 변화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특성을 갖는다. 베트남전쟁이나 현대의 테러 및 대테러전쟁을 고찰해 보면, 베트남전쟁의 경우, 이것은 고대시대에 베트남 민족이 중국이라는 강자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칭 전력이 약자의 투쟁방식으로 사용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결합된 복합적인 정치적 투쟁방식 혹은 새로운 인민전쟁방식으로 변증법적인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등은 보다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대칭 전략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변증법적인 발전과 진화를 계속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 2)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

인류는 자신의 현재의 문명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나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도 테러리즘과 같은 비대칭적 폭력과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안보를 끝없이 위협하는 북측의 특수전 능력을 포함한 로테크(low-tech) 비대칭 전력과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하이테크(high-tech) 비대칭 전력에도 동시에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황에도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북측의 핵, 미사일, 화학전, 생물학전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야 우리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특수전부대, 잠수함, 각종 미사일과 장사정/다연장포, 그리고 핵 무기를 포함한 화생방 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은 그냥 평화를 구가하며 살아가기에는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능력이 이제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반도 정세의 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항상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화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대두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구비한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지향하면서 선제기습과 배합전, 그리고 속전속결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에서 얻은 전쟁경험과 전후의 무장간첩 남과투쟁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고 마오쩌둥식 유격전략 등을 융합하여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첨단 유도무기와 공군력, 그리고 정보전의 위력을 목격하고, 나름대로의 현대전 개념을 배합하려 하고 있

다.<sup>32)</sup>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까지 개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위협당하고 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지상군 102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으로 구성된 119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전시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전 능력으로 육군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여 특수전 병력 18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에서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비정규전 능력은 전면 남침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도 대남도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전력을 증속시켜 주는 핵심적 비대칭 전력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세계 3위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한미연합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핵억지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현재 그들이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을 45~48kg으로 평가하면, 핵무기 1개 제조량 4kg을 적용한다면 최대 12개, 6kg을 적용하면 8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화생무기는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2) 김우수, 『21세기 북한의 이해』(서울 : 북코리아, 2011), pp.145~147.

33)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북한 해군의 은밀침투 기동성 있는 타격능력, 그리고 앞으로 서해 도서에서 예상되는 대량상륙능력은 상시적인 비대칭전력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거대한 미사일과 해안포를 근간으로 하는 연안방어 및 해안 침투거부능력은 지금도 강력하지만, 앞으로도 북한은 자신의 강점이 되는 분야를 위주로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AN-2기 등을 이용하여 저공·저속으로 남한의 후방 깊숙이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박영택·권양주·함형필 공저,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201~208.

### 3) 대비책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미래전쟁은 그 전장공간이 사이버전쟁에서 우주 전쟁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통적 비전통적인 형태의 비대칭적 전쟁방식까지 포함되는 복합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능력을 알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발휘해야 할 힘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군사력 측면에서 군사 구조적인 측면, 전략과 전술교리적 측면, 무기체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면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남북한 군사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형태의 전쟁과 각종 도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전쟁은 더욱더 다면적이고 비대칭적인 형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미래의 전쟁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평시에도 북측의 비대칭적인 각종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대비는 군의 전력구조를 포함한 각종의 전력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은 현대적 첨단기술 중심의 미래전을 상정하면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도 아울러 대응할 수 있는 다면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군은 미래전쟁이 단 한 가지 방향, 예를 들면 첨단기술전쟁의 단일 이미지로 흘러갈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에 빠져서는 안되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도 효과

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도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sup>34)</sup>

### (1) 군구조적 측면

미래전의 방향이 현대과학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첨단기술전쟁과 비대칭 전력이 아울러 사용되는 복합적의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상정할 때, 우리 군의 구조 또한 이러한 미래전의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군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군 구조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도전에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구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군의 역할과 더불어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적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전략과 전술교리적 측면

현재 북한군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sup>35)</sup> 그래서 미래전의 향방은 특정화시킬 수 없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안보를 위한 전략은 다양한 미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술과 교리는 그러한

34) 다차원적인 미래상황속에서 특정한 미래전쟁의 이미지에만 부합되는 군구조로 지향해서는 우리 군의 미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김종하,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서울 : 북코리아, 2008), pp.28~29.

35)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23.

다양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시도하는 비대칭전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술교리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예를 보면, 북한 측이 시도하는 비대칭 전술의 일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말기, 기울어져 가는 전세를 만회하고자 가미가제 특공과 수중 잠수를 이용한 특공을 포함한 온갖 가능한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여 미군에 대항하였다. 지금 북한군의 비대칭 전술의 양상은 이러한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측이 준비하고 있는 화학전과 생물학전, 그리고 사이버전, 핵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교리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무기체계적 측면

무기체계와 교리는 바늘과 실의 관계며, 계란과 닭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의 각종 상황을 맞이하여 주도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장비하며 이를 교리와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과제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체계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재래식 방식이 조화된 적응성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첨단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보다 현대화된 무기체계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점인 기술과 경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첨단과학과 기술이 동원된 현대적 장비도 첨단기술전쟁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비대칭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차대전시 독일의 잠수함전에 대응하여 연합군은 구축함과 폭뢰를 개발하여 대잠수함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맞이하며 미 해군은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이 재발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결 론

북한의 기본 목표는 대남적화통일로서 현재로서는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며, 북한의 군사력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평시의 주도적인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군사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6·25전쟁 이후 제2의 6·25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준비해 온 지속적이고 집요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재래식 전쟁의 영역을 넘어 핵무기의 생산과 사이버전의 영역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측의 도발양상을 볼 때, 특수전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과서적인 단일한 대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안보위협은 물론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구조와 전략 및 전술교리를 발전시키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에 특히 평시 국지도 발은 물론 전시 핵심공격수단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대응능력을 준비하는 데 온갖 군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비대칭 전력이나 전략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 수군이 판옥선과 거북선을 제작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래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당면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공세적 전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3. 27, 심사수정일 : 2012. 5. 15, 게재확정일 : 2012. 5. 18)

주제어 : 비대칭 전쟁, 비대칭 전력, 사선대형, 비정규전, 게릴라전, 기습, 창의, 특수전부대, 로테크, 테러

<ABSTRACT>

## A Research in War History on the Use of the Asymmetric Force

Jang, Yong-un

Recently, among the elements of serious threats to Korea such as nuclear, missile, special forces etc., asymmetric force of North Korea makes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in Korea. In spite of the serious shortages of food and economic difficulty,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 missiles and trained strong special forces. Such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have enhanced the capability of total war and limited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But the concept of the asymmetric forces was not new. It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the war history of the world. If we want to prepare for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we should make efforts and be prepared to deal with them. Because the future war will be more multi-sided and more asymmetric, these preparations must be made to respond to the total war and to the provocations in peace time. In short, these preparations should include military structure, strategy and tactics, weapon systems. Thus, we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various situations.

Key Words : Asymmetric Warfare, Asymmetric Force, Oblique Order, Irregular Warfare, Guerrilla Warfare, Surprise, Creativity, Special Forces, Low-tech, Terror